무산된 대선주자 '3자 회동' 추석이후엔 성사될까

공감 하지만 주도권 싸움에 아직은…

박·문측 "추석이후 만나자" 역제안 가능성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제안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3자 회동이 불발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명분 상으로는 빡빡한 일정을 들었지만 안철수 후보의 주도권 싸움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안 후보의 조광희 비서실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최경환 비서실장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어 실무 접촉을 가졌으나 일정 조정이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박 후보 측의 최경환 비서실장이 "박 후보의 추석 이전 일정이 미리 짜여져 있어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조광희 비서실장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진 대변인은 "(박 후보의) 일정만 조정되면 문 후보는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함께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박 후보 캠프의 사정상 (3자회동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 후보와 민주당 문 후보가 안 후보의 제안에 대해 후일을 기약하며 한 발 물러선 것은 어설프게 3차 회동에 응했다가는 자칫 대선 초반 경쟁 구도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며 안 후보의 페이스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안 후보가 전격적으로 실무 협의를 제안하는 등 3자 회동에 의지를 갖는 것은 네거티브와 흑색 선거에서 벗어나 정책 경쟁을 정착시키겠다는 명분을 통해 '변화와 혁신'의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배경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3자 경쟁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대선 출마 선언 때 "선거 과정에서 흑색선전으로 감정의 골이 패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3자회동을 제안한 데 이어 21일에는 회동 시기를 추석 전으로 특정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에도 3자 회동이 성사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박근혜, 문재인 후보 측은 표면적으로는 추석 이후, 회동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다.

특히, 박 후보는 지난 20일 3자회동에 대해 "(깨끗한 선거) 이것은 어떤 선언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실천을 열심히 해야 할 문제"라고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는 "안 후보의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며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하지만 3자 회동 제안이 결국 안 후보를 띄우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박 후보와 민주당 문 후보 측에서 추석 이후, 3자 회동의 틀을 키우는 방향으로 역제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 개혁이 이번 대선에서 피할 수 없는 이슈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6일 중앙선대위 의장단으로 이한구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김무성 전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했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태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맨오른쪽은 문재인 선대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에 발탁된 윤여준 전 장관.

대선후보 '대선지휘본부' 윤곽

박, 중앙선대위 의장단 이한구 등 5명 임명
문, 국민통합위원장에 윤여준 前장관 발탁
안, 법률지원단 등 10개 분야 팀 별로 운영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대선 지휘본부'의 윤관이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26일 중앙선대위 의장단으로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했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태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에는 이혜훈·심재철·정우택·유기준·김진선 최고위원과 함께 남경필 의원과 친박(친박근혜) 핵심이자 전략기획통인 유승민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중앙선대본부장에는 서병수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했으며, 종합상황실장은 권영세 전 사무총장이 맡았다. 조직본부장과 직능본부장에는 경선 캠프에서 같은 직함을 가졌던 홍문종·유정복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홍보본부장에는 변추석 국민대 조형미술대학장, 미디어 본부장에는 박창식 의원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본부장에는 김철균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선대위 산하 '민주캠프'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전격 발탁했다. 공동위원장에는 영남에 지역기반을 둔 추미애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한나라당 출신으로, 중도개혁 성향의 '책사'로 알려진 윤 전 장관 기용은 중도보수층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풀이되나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목희, 이상민 의원은 각각 기획본부장, 비경제분야 정책 파트인 공감2본부장에 각각 임명됐으며 TV토론 전략 등을 맡을 소통2본부장은 김현미 의원이 맡았다. 경제분야 정책 부분인 공감 1본부장에는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메니페스토 본부에는 전병헌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일단 기성 정당의 선대위와는 다른 형태의 '지휘본부'를 꾸린 상태다. 안철수 캠프는 총괄본부장을 맡은 박선숙 전 의원을 포함해 법률지원단·상황실·대외협력팀·정책기획팀·기획팀·메시지팀·홍보팀 등 10여개 팀으로 구성됐다. 선대위를 무겁게 가져가기보다 팀 위주의 단출한 모양새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의 역할·업무 확장 여부에 따라 그 규모는 다소 커질 수 있다는 게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나아가 안 후보가 자발적 지지층에 힘입어 현 위치에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감안, '개방성'에도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시민사회, 일반국민, 학생 등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이 'SNS 캠프'를 내세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골목상권 보호 '정책 + 힐링' 행보

영세상인 고충 청취…박원순과 비공개 회동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6일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서울 시내 자치단체장과 영세상인들을 만나는 등 '정책+힐링' 행보를 계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해 민주당 소속 구청장과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을 만나 골목상권 보호의 중요성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민주화는 먼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래시장·골목시장·골목상권을 살리고 활기차게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한편, ▲대형 유통업체 허가제 전환 ▲대형 마트 매출영향평가 의무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강화 등의 방안 등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25분간 비공개 회동을 하기도 했다. 행사 직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 후보와 박 시장은 즉답을 피했다. 문 후보는 오후에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강북구 미아동의 한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 지역 자영업자 여섯 명과 함께 둘러앉아 이들의 고충을 듣기도 했다.

한편, 문 후보는 국민펀드를 발행해 선거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펀드 명칭은 '문재인담쟁이펀드'이며, 추석 직후 발행될 예정이다.

펀드 투자금은 대선 후 선거비용이 보전되는 내년 2월말부터 이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개별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상환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골목상권 지킴이 간담회'에 참석,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고 있다.

안철수, 봉하마을·부산서 'PK민심' 공략

노무현 前대통령 묘역 참배…모교·국제영화제 방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26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과 부산을 잇따라 찾아 PK민심 공략에 주력했다.

안 후보는 이날 낮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처음으로 참배한 뒤 방명록에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가짐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사저로 이동해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 취임 몇 달 전, 따로 만나뵐 기회가 있었다"며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때 자신에게 대선후보 후원회장직을 제안하려 했었다고 밝혔다고 유민영 대변인이 전했다.

또 2000년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 이후 열린 한 전시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문한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소프트웨어를 선물하려 했으나, 노 전 대통령이 "소프트웨어는 돈을 내고 사야 한다"면서 직접 구입해 갔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이에 권 여사는 안 후보에게 "잘하고 계신다. 건강 잘 지키시고 앞으로도 잘 하셔달라"고 격려했다고 유 대변인이 전했다.

안 후보는 이어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모교인 부산고등학교와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역 발전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을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양극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나 소득의 양극화가 있지만 지역 발전의 양극화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추석을 앞두고 부산 범천동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룻밤을 묵은 뒤 27일 오전 처가인 여수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대선 후보가 26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노대통령의 흉상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매투자 부실채권 특수물건

경매상담

1.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2.특수물건 해결방법 제시
3.NPL 매입/투자비법 전수
4.단독/공동투자 가능
5.교육/임장비등 회비 550만원

소액투자자 대환영!

친절상담 H.010-3605-5000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ASSET KOREA since 200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도산동[교회]	순천조례 [상가,주차빌딩]	영암삼호 [근린시설]	월곡동[찜질,헬스]	치평동[일반음식점]	화정동[예식장]	전주우아동[나이트]
대772㎡,건786㎡	대2136㎡,건5647㎡	대777㎡,건1152㎡	대1570㎡,건4742㎡	대98㎡,건568㎡	대1094㎡,4489㎡	대1794㎡,건3968㎡
감정가 9억5천	감정가 43억1천	감정가 9억1천	감정가 76억8천	감정가 11억9천	감정가 41억5천	감정가 47억4천
최저가 5억3천	최저가 15억4천	최저가 4억1천	최저가 27억5천	최저가 6억1천	최저가 21억2천	최저가 19억4천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금동[목욕탕]	광주 쌍암동(유흥시설)	담양금성(공장)
▷대지 91평 ▷건물 303평	▷대지 1520평 ▷건물944평	▷대지 1482평 ▷건물 299평
▷감정가격 10억	▷감정가 89억7천	▷감정가 7억 1600만
▷매매가격 4억7천(협의후결정)	▷매매가 40억 (협의후결정)	▷매매가 5억 (협의후결정)
용봉동[하미스포렉스]	울산울주(숯가마)	전북완주 봉동 공장
▷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대지 2455평 ▷건물 445평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감정가 515억7천	▷감정가 18억2천	▷감정가 135억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매매가 8억 (협의후결정)	▷매매가 80억분할가능(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원이사 010-8227-7759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 매매

▶ 쌍촌동 운천저수지 건너편 명지아파트 옆
대지 427평(매매가 7억6천8백60만원)
평당 180만원

아파트/빌라 박미란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 광주대앞(지하)호프,분식60평,원룸형빌라(산수동,백운동)5칸, 계림동 E마트1층1칸
대출 +보증금공제후 실인수가 1천만원 (H.010-6654-6888)